

車 생산 넘어 AI 기술 기업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속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자율주행 기술로 혁신 경험 제공
韓 AI 데이터센터 등 경쟁력 확보
구글·엔비디아와 퍼지컬 AI 협력
완성차 현지화·지역특화 전략 제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개최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래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미국 고율 관세와 환율 변동,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 기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개최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단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AI, 자율주행, 로봇틱스 등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여왔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단순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을 넘어, 이를 생산하고 움직이게 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더 많은 차량에서 혁신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와 협업, 포티투닷 및 모셔널에 대한 투자, 웨이모

와 파트너십, 그리고 한국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넘어 로봇틱스 분야에서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보스토탄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

축할 계획”이라며 “구글 딥마인드와 엔비디아의 퍼지컬 AI 인프라 협력을 통해 압도적 기술 생태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올해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완성차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주영 창업회장의 도전 정신을 이어가며 협력사와 ‘원 팀’으로 협력해 위기를 기

회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뇨스 사장은 올해 경영전략으로 현지화 전략 강화, 지역별 특화 상품 전략 강화, 기술 기업 전환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차(HEV) 생산이 시작되고, 인도·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에 신규 생산 거점을 구축해 그룹사 기준 2030년까지 글로벌 생산능력을 연 120만대로 확대하겠다”며 “단순 현지 생산을 넘어 현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개발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현지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향후 5년간 20종의 신차를 출시하고, 전용 전기차인 일렉시오 SUV에 이어 올해 신형 세단 전기차를 선보인다. 북미에서는 투싼과 엘란트라를 출시하고 2027년부터는 주행거리연장형 전기차(EREV)를 선보일 방침이다. 2030년 이전 중형 픽업트럭도 출시한다.

유럽에서는 아이오닉3 공개를 시작으로 향후 18개월 동안 5종의 신규 모델을 출시한다. 인도에서는 2027년 최초로 현지 설계, 개발한 전기 SUV를 공개하고, 2030년까지 50억달러의 투자해 푸네 신

공장 생산능력을 25만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26개 신모형을 투입하고, 2027년에는 제네시스의 인도 진출도 검토한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글로벌 414만대 판매와 전년 대비 6.3% 증가한 매출 186조3000억원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11조4700억원, 영업이익률은 6.2%를 달성했다. 미국의 경우 연간 도매 기준 100만대 판매를 돌파했으며 북미 전체 소매 판매는 122만대에 달해 8% 증가했으며 5년 연속 소매 판매 신기록, 3년 연속 총 판매 신기록을 경신했다.

친환경차 전환도 성과를 냈다.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는 약 100만대로 늘었고, HEV와 전기차(EV)는 각각 28%, 26% 성장했다.

무뇨스 사장은 이 같은 실적을 기반으로 미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원을 투자하고, 미국에도 2028년까지 260억달러를 투입해 생산·공급망·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초 슈퍼사이클 주도권 잡고 글로벌 1등 기업 도약”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단순 호황 아닌 인프라 구조 변화
글로벌 핵심전략 시장으로 美 제시
데이터센터·직류 전환 핵심 공략



바뀌는변곡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회장은 전력 시장이 기존 송·변전 중심 사이클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분산전원 확대 배전 시장이 성장을 이끄는 ‘초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LS일렉트릭은 배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사업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에 나선다. 기존 전력기기 공급 중심 사업에서 나아

가 전력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플랫폼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실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지난해 매출 4조9658억원, 영업이익 426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북미 매출은 1조원을 넘어섰고 수주잔고도 5조원 이상 확보했다.

글로벌 핵심 전략 시장으로는 미국을 제시했다. LS일렉트릭은 텍사스 베스트 컵 캠퍼스를 생산·기술·서비스 통합 거점으로 육성하고 유타 MCM에너지어링II

배전반 솔루션 생산설비 증설도 추진하는 등 현지 생산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과 납기 경쟁력을 앞세워 단일 제품 공급을 넘어 고객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북미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도 확정했다. 현지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주요 전력기기와 배전 솔루션의 현지 생산 비중을 높여 관세와 물류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설계부터 생산, 납품, 운영까지 이어지는 엔드투엔드 체계 구축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미래 전력 시장의 핵심 축으로는 직류(DC) 전환을 꼽았다. 구 회장은 “미래 전력 경쟁력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느냐에 달려 있다”며 “직류는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전력 시장의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자기주식 보유·처분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불확실성 장기화 속 경영 안정성 유지”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고기능성 합성고무 설비투자 완료
자사주 보유·처분 규정 정관 변경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26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속에서도 원가 절감과 리스크 관리로 수익성을 방어하는 한편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통해 지속 성장에 나선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는 26일 서울 중구 시그니처타워에서 열린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장기화로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수익성 압박이 지속됐다”며 “이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인 원가 절감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지속적 주주 가치 제고를 실현하겠다는 방침도 내

냈다.

금호석유화학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시장 확대와 고성능 타이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기능성 합성고무 솔루션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SSBR) 병행 생산 설비 투자를 완료했으며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I)와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EPDM) 증설 투자도 마무리해 핵심 사업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함께 강화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부담 요인으로 떠오른 가운데서도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원재료 수급 다변화와 고객사 협력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자기주식 관련 사항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했지만, 변경안은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상법 개정에 따라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 대상이 되지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다.

SKT, ‘정재현 대표이사 체제’ 공식화

1.7조 투입해 ‘비과세 배당’

SK텔레콤이 정재현 최고경영자(CE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정재현 대표이사 체제”를 공식화했다.

SKT가 26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제4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번 주총에서 SKT는 실적 회복과 주주친화 정책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 근거를 마련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주환원 극대화 전략이다. SKT는 자본준비금 중 1조7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주주들이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감액 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해당 재원은 2026년 재무제표 확정 후 이르면 올해 기말 배당부터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전체 발행주식의 0.84%에 달하는 자기주식 중 일부를 임직원 보상용으로 처분하고, 잔여분은 추후 이사회 의

결을 통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여파로 배당이 축소됐던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배당상향 효과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재현 CEO는 “본연의 경쟁력을 가진 단단한 SK텔레콤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최근 40% 선이 무너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에 대해 “MVNO(알뜰폰) 증가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 올해는 다시 순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말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정재현 CEO와 함께 한명진 MNO CIC장이 사내이사로, 윤풍영 SK 수퍼스추우협의회 담당 사장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한명진 사내이사는 통신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AI 전환(AI) 과제 도출을 맡고, 윤풍영 이사는 그 룩과의 AI 시너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원관희 기자 metro